이덕일의 '역사의 창'

사법 기관의 근본적 개혁

지금 경찰은 버닝썬 사건으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되어 법원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 기관들이 거꾸로 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역사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 좋다. 먼저 조선의 사법 제도와 비교해 보자.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사법 제도가 조선의 사법 제도보다 나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먼저 조선은 수사권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켰다.

지금의 검찰 비슷한 조직이 사헌부였다면 의금부는 지금 도입하려는 공수처와 비슷하다. 사헌부·의금부 외에 지금의 법무부 격인 형조와 경찰 격인 포도청도 수사권이 있었다. 선조들은 수사권을 왜 여러 기관에 주었을까? 그래야 한 기관의 묵인 내지 방조로 사건이 덮이는 것을 막고 사법 기관끼리 서로 견제시켜 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 덕분에 조선에서는 버닝썬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였다. 포도청이나 사헌부에서 사건을 덮을 경우 바로 의금부나 형조 등이 나서서 관련 관원들을 구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다.

또한 판사 역할을 하는 사율원의 판사들은 잡과(雜科) 출신의 중인 신분이었다. 그래서 1895년 갑오개혁 때 당시 법원이었던 평리원(平理院) 내에 법관 양성을 위한 법관양성소가 설치되었을 때 양반 출신들이 기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수사는 고시 격인 문관 출신들이 하게 하고 판결은 중인 잡과 출신들이 내리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재량권 따위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조선의 판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계적 판결을 내렸다. 특정 형벌에 똑 떨어지는 법 조항이 없을 경우 가장 근사한 조항을 끌어 판결하는데 이를 비율(比律)이라고 했다. 재량권은 오직 국왕만 갖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피혐(避嫌)과 상피제(相避制)까지 마련했다. 피혐이란 본인에게 털끝만 한 하자가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혐의가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 즉각 물러나는 제도였다. 상피제는 친족이나 친한 사람이 같은 부서나 유관 부서, 요즘 말로 이해 충돌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한 제도였다.

성종 10년(1479) 대사헌 어세겸은 동생 어세공이 병조판서가 되자 스스로 사직했다. 사헌부는 백관에 대한 규찰권이 있는데, 동생이 무관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병조판서가 되었으므로 사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권력 기관들은 내부 문제에 엄격했다. 같은 부서의 인물이라도 혐의가 있을 경우 사정없이 탄핵했다.

태종 17년(1415) 8월 사헌부에서 같은 사헌부 집의(執義) 권상온(權尙溫)을 탄핵한 적이 있다. 권상온이 다른 관직에 있을 때 금주령 중인데도 손님 및 상기(上妓) 몇 명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태종은 즉각 형조에 명해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고하게 하였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법권이 있는 기관 내의 부정을 막지 못하면 나라 자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내부 비리를 숨기기도 힘든 구조지만 이를 숨겼다가 드러나면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었다.

조선이 500여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유지하면서도 그다지 큰 권력형 부정 사건이 없었던 것은 이런 이중 삼중의 제어 장치 때문이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모두가 선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해야 하지만, 제도를 만들 때는 인간이 극도로 악하다는 전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악한 품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했던 것이다.

지구상 어느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온갖 불법과 부정과 비리를 매일같이 목도하는 우리 사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즉 현 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하지 않을 경우, 우리 나라가 이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청출어람 청어람

임 지 헌
첨단우리병원 원장

해마다 봄이 되고 새 학기가 되면,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젊은 학부형도 신경 쓸 일이 많다. 바뀌는 교실과 친구 및 선생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함과 편안함보다는 긴장도를 올리게 한다. 그리고 중년이 넘은 대다수 사람은 내분비적으로 반응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 변화보다는 편안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진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서 젊었을 때는 개혁 세력이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변신해 나타나는 것도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한자 성어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 청색은 쪽풀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은 사제지간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된다. 이를 제목으로 정한 것은 스승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비춰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어서다. 이번 봄에 정년 퇴임 하신 내 은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직접 표현해 본 적은 없다.

필자는 전남대병원 송은규 교수님을 의대 본과 3학년 실습 때 처음 뵀다. 의과대학 교육 과정은 본과 3학년 후반기가 되면 1년 동안 각 조별로 진료과에서 1주일씩 실습을 한다. 각각의 진료과에 교수진이 보통 6~7명이 넘어서 어떤 경우는 특정 교수님과 한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실습이 끝나기도 한다. 그래서 2001년 당시 교과 과정에서는 '선택 실습'이라고 해서 학생이 특정 교수에게 1주일 추가 실습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었다.

평소 정형외과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송 교수님께 선택 실습을 지원해 1주 동안 졸졸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나름 학생으로서는 약간 어려울 만한 수준의 질문을, 밤새 찾아서 교수님께 말을 걸었고, 송 교수님이 그때 5층 연구실로 데려가 당시 최근 발표하셨던 논문 인쇄본을 선물로 주셨다. 무릎 관절 연골판 치료법도 함께 설명해 주신 기억이 있다.

송 교수님은 1978년에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1986년에 다시 대학병원에 교원으로 복귀하셨다. 80년대는 의료 보험 제도가 지금과 크게 달라, 쉽게 말하면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어 개원의 유혹이 컸던 시절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노성만 주임 교수님의 부름에 바로 다시 들어오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서울대병원에서도 시작하지 않았던 정형외과 파트 분과를 노성만 교수님의 지휘하에 척추 정재윤 교수, 상지 문은선 교수, 무릎은 송은규 교수로 나누셨고, 이후로 송 교수님의 무릎 연구 일생이 시작됐다.

지금은 흔한 수술이 됐지만, 관절경을 이용한 무릎 전방 십자 인대 수술법을 직접 배우러 1989년에 미국 연수를 다녀오셨다. 당연히 아직 한국에는 수술 기구가 없어 기구 제작사에 의뢰해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수술을 하셨다. 그리고 교수님의 학자적인 집요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수술 환자 한 분, 한 분의 증례를 기록하고 이를 표로 정리 인쇄해서 진료를 할 때마다 옆에 두고 환자 증상을 업데이트하고, 찾아보고 확인하셨다. 젊은 독자들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VHS 비디오 테이프를 다 돌려 편집기에 띄우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밤샘 작업이 필요했다. 엑셀 프로그램, 동영상 제작·편집 기술은 한참 뒤에 등장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송 교수님은 우리나라 무릎(슬관절) 학회에서 능력을 점차 인정받게 됐고, 이 정점을 찍은 것은 단연 무릎 인공 관절 치환술에서 내비게이션과 로봇 수술의 도입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곧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하시고 2003년에 국내 대학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입하셨다. 당시 초기 버전으로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수술 기구를 미국 생산 업체와 같이 개선하고 더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2004년에는 로봇을 이용한 인공 관절 수술도 이에 결합해 전남대병원 관절센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으셨다.

이같이 빛나는 업적도 교수님 일생의 연구에서는 한 분야에 불과한 것이라 '청어람'을 절대 못 할 것 같아 부담스럽지만 제자로서 연구 과정 일부를 담당했고, 또 결과물의 한 꼭지에 필자가 참여했다는 것을 떠올리면 뿌듯하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서 올 3월 초에 열렸던 송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에 다녀왔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된 교수님의 정년 뒤 펼쳐질 제 2막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본다. "송은규 교수님,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후학들에게 좋은 가르침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 고

개나리 단상(斷想)

정 대 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이맘때면 출근하는 무진대로 양쪽으로 장벽처럼 둘러 핀 노란 개나리꽃들을 본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이 많지만 내게는 개나리꽃보다 더 반가운 얼굴이 없다. 그리고 개나리꽃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하나 있다. 영원한 청년,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이 그분이다.

식민지 시절 여름 오후 늦은 때, 이상재 선생이 서울 종로 YMCA회관에서 강연을 하시다가 청중들 뒤쪽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일본 순사들을 보셨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재 선생은 유리창 너머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어허! 초봄이 지난 지 한참인데 개나리들이 만발을 했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일본 순사들을 '나리'라고 높여 불렀는데 거기에 '개'자를 붙여 '개나리'라고 에둘러 말씀하셨으니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다고 하는 일화다.

그래서 그런지 개나리꽃이 필 때면 촌철살인(寸鐵殺人)과 같은 교훈으로 백성들과 청년들의 의식을 깨우친 반면 일제에 붙어 권세를 유지하던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면서 나라 사랑을 온 몸으로 실천하셨던 선생의 모습이 떠올라 남다른 감회에 젖곤 한다.

개나리란 이름은 참나리의 '나리'에 '개'자를 붙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보통 본디 식물보다 못한 다른 식물에는 '개'를 붙이고, 비슷하게 생긴 식물에는 '나도', '너도', '아재비' 등을 붙인다. 개두릅, 개머루, 개살구, 개가시나무 등이 그렇고, 나도밤나무, 너도밤나무, 미나리아재비 등이 그렇다.

그런데 겉보기에만 참나리를 축소해 놓은 듯 한 모습 때문에 나리보다 못하다 하여 개나리라고 명명(命名)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나리와 개나리는 전혀 다른 종의 식물이다. 개나리는 떡잎이 두 장인 쌍떡잎식물로 물푸레나무과 개나리속 개나리종으로 구분되고, 참나리는 떡잎이 한 장인 외떡잎식물로 백합과, 나리속, 참나리종으로 구분된다.

개나리는 한반도에서 흔한 특산종이다. 학명도 '포르시띠아 코리아나'(Forsythia koreana)이다. 울타리든 들판이든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린 곳이 저들의 삶터이다. 따로 열매 맺어 씨를 퍼뜨리지 않아도 꺾이고 부러져 밟힌 가지들이 거기서 다시 뿌리를 내려 저들만의 강인한 삶을 이어간다. 우리네 민초들의 모습을 꼭 빼닮았다.

요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부인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잘못을 끝까지 은폐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질문하는 기자에게 "이거 왜 이래?"라고 역정을 냈던 분도 있고,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설화(舌禍)를 자청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나도 "개나리가 만발했네"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이상재 선생처럼 그런 작은 말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련다. 보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만일 내가 그렇게 부른다면 진짜 꽃 개나리가 서러워할 것 같아서 차마 못 하겠다.

3월 29일은 이상재 선생이 소천(召天)하신 지 92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 기록에서는 그를 일제 강점기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장, 조선교육협회장, 신간회 창립회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민권 운동가, 청년 운동가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청년 이상재'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는다. 고령의 나이에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활동하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나이에 맞지 않게 왜 그러시느냐?"고 말하자 "그럼 내가 청년들에게 맞춰야지 청년들이 나이든 사람들처럼 하도록 해야 옳겠느냐?"고 반문하셨다는 그이기에 영원한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무척 잘 어울린다.

개나리꽃이 만발한 봄날에 어지러운 조국의 모습과 내 고장 광주를 향한 수치를 모르는 말(言)의 배설물들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 선생이 살아계셨더라면 어떤 촌철살인의 말씀(語)으로 저들을 부끄럽게 하셨을까?

社 說

갈등 빚던 혁신도시·SRF 소통의 물꼬 텄다

광주시와 나주시는 그동안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 발전 기금 조성과 복합 혁신센터 및 발전 재단 설립 재원 마련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최근에는 광주권 고형 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중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양측의 관계는 더욱 꼬여만 갔다.

한데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이런 균열과 대립의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최근 마련됐다. 양 지역 행정 수장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이 엊그제 전격적으로 만나 갈등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한 것이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두 단체장은 혁신도시 관련 현안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인 공동 발전 기금 조성 시기에 대해 나주시는 그동안 2023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해 왔지만 이 시장이 이날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풀어 보자'는 제안을 했고 강 시장도 '실무진을 꾸려 본격 논의해 보자'며 수용했다고 한다. 또한 광역 행정 차원의 해법이 필요한 SRF 문제에 대해서도 양 지역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단체장은 이번 만남에서 갈등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를 집중 논의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 지역이 최근 한전공대 유치 과정 등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갈등이 골이 깊어진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성과다.

양 지역은 경계를 마주한 이웃사촌이다.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혁신도시를 나주에 조성한 것도 공공 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인근 지자체가 함께 나눠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였다. 이제 소통의 물꼬가 트인 만큼 양 지자체는 역지사지의 전향적 자세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인재 키울 수 있도록 터전 마련해 주자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장학금 조성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 여파로 기부 문화가 주춤해지면서 광주 일부 자치구들이 장학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는 매년 장학금 기탁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 기탁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후원자들의 기부금과 이 기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 수입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의 경우 현재 조성된 장학기금은 8억3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선이던 기탁액이 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100만 원 이상 기탁자도 평년에는 50명 내외였으나 올해는 25명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구청 공무원 150명과 주민 100명이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새로운 기탁자는 불과 7명에 그쳤다.

광주시의 빛고을장학회도 해마다 줄어든 기탁금으로 인해 장학 기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7610만 원이던 기탁금이 2018년 3210만 원으로 42.1 %나 감소했다. 북구장학회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71억 원 수준으로 기금이 비교적 넉넉해 100%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이자 수익이 감소한 탓에 제1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기탁처를 옮기는 등 고심하고 있다.

장학 사업은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체 등 지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이기도 하다. 각 지자체는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늘리는 한편 후원처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꽃을 든 남자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담아 보내는 선물로 꽃만 한 것이 없다. 옛 문헌에 종종 보이는 헌화가(獻花歌)에도 꽃을 매개로 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붉은 바위 끝에/ 암소 잡은 손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신라 시대 향가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헌화가다. 신라 성덕왕 때 수로부인이 바닷가 절벽의 철쭉꽃을 갖고 싶어 하자 마침 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치며 부른 노래다. 헌화가에는 평범한 촌로가 목숨을 걸 정도로 수로부인의 미모가 뛰어났다는 것과 신분을 초월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경이 담겨 있다.

조선 시대에는 꽃에 꽂혀 산 남자가 많았다. 이가환은 꽃을 가꾸어 구경하는 것이 최고의 유희라고 했다. 그는 "하늘은 기이한 빛깔을 소유하고 인간은 그것을 빌려 쓴다"면서 "그 기이한 빛깔을 빌려 쓰는 사람 중에 최고는 꽃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말을 남겼다. 100가지 화초를 키우고 살아 백화암이란 호를 가진 유박은 꽃을 9등급으로 구분해 각각의 꽃에 품평을 남길 정도로 꽃의 달인이었다. 교태 어린 용모가 손에 잡힐 듯한 것은 석류이고 기상이 활달한 것은 파초라며 꽃의 특징을 세세히 표현하기도 했다.

요즘엔 꽃 사랑이 선조들만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꽃을 든 남자를 거리에서 보기 힘들다. 생화 소비량도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꽃 소비액은 1만3000원으로 프랑스 등 선진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외국 마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화를 파는 코너가 1층 노른자위 자리에 별도로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꽃을 생활 속에서 많이 소비한다는 것일 게다.

광주시교육청이 인사철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꽃 선물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 화훼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사 직전인 화훼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안동시는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 책상에 꽃 한 송이를 놓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화훼 농가도 살리고 직원들 힐링도 시키는 역발상 정책 아닌가.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